

“8월 24일, 미국 직장인 병가 신청 가장 많은 날”



▲ 미국 직장인이 가장 많은 병가를 신청하는 때는 노동절 연휴 1주일 전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근로자들이 병가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날은 '8월 24일' 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헤럴드 경제'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연차관리시스템 회사 '플라밍고'가 지난 5년 동안 미국 근로자의 병가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연휴 1주일 전인 8월 24일에 병가를 신청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2월 13일로, 슈퍼볼과 밸런타인 데이 전후다.

이 조사는 직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직원의 0.9%가 8월 24일에 병가를 냈는데 이는 연중 다른 어떤 날보다도 높은 비율이라고 플라밍고는 밝혔다. 병가 요청 이유로는 50% 이상이 위례양을, 25%는 코로나바이러스를, 6%는 뼈가 부러졌다거나 근육통 등을 들었다.

인적 자본 관리 솔루션 업체인 페이코(Paycom)의 최고인사책임자인 파라스 파커는 신체적인 질병 외에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집에 머무는 근로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플라밍고 조사에서 불안·스트레스 장애는 병가 원인의 9%를 차지했다.

파커는 “휴가의 이유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병가를 반려하는 것은 좋지 못한 조직문화”라고 평가했다.

지하 수자원 고갈 위기 ... “식수조차 부족해질 것”

미국의 지하 대수층이 전국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중으로 분석됐다. 대수층은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이다.

지난 30일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물 사용량의 90%를 대수층에 의존한다. 그런데 NYT가 1940~2022년에 걸쳐 전국 8만개 이상 우물의 수위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매년 수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곳보다 하락한 곳이 더 많았다.

오스틴 텍사스대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주요 대수층 두 곳의 수위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20년 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가뭄으로 말라버린 캔자스의 옥수수밭. 사진=EPA/연합뉴스

캔자스주의 경우 물 부족으로 이미 수년간 옥수수 수확량 감소를 경험했으며, 향후 50년 안으로 전체 대수층의 절반 정도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수량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아칸소, 콜로라도, 메릴랜드, 유타 등 다른 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NYT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농장과 기업들이 물을 마구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현상도 이런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물 전문가인 워리지가 보면 털사대 교수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식수조차 부족해지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명 백팩 의무화’ 학교 증가 ... 총기 사건 여파

미국에서 학교 내 총기 사건이 잇따르자 일부 학교들이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백팩(책가방)을 의무화하거나 아예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전날, 지난 1년6개월 동안에만 최소 27개 지역 교육청에서 백팩 규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K-12 학교 총기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9일 현재 미국에서 교내 총기 사건은 22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총 305건으로 9년 전인 2013년의 34건의 9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기 사건을 예방하고자 투명 백팩을 의무화하는 등



▲ 학생들이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가방을 메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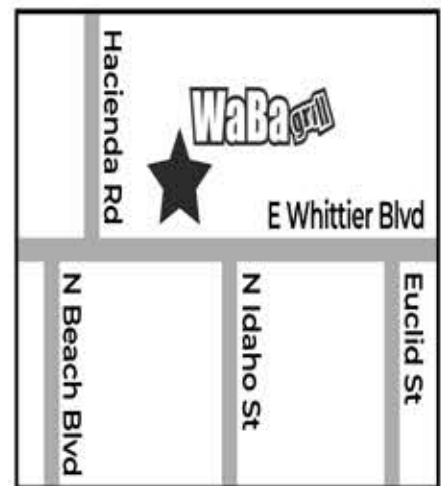
'K-12 학교 총기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한 데이비드 리드먼은 “일부 학교가 이미 2000년 중반 총기 사건 이후 투명 백팩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며 “점점 더 많은 지역 학교에서 총기 사건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 백팩을 의무화하는 학교들이 늘어나자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드먼은 “투명 백팩 소지를 의무화하면 학생들은 스스로를 잠재적 총격범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학생과 학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